

발산: 자아비판에 괴로워하고 있는 윤

수산: 평가를 함께 열심히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집국 여러분

13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1학기 평가

1. 연성폭력부리뽑기연대회의 해소와 반성폭력팀 활동 형태

올해 총여학생회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하는 고민은 폭넓게 나누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당시 상황논리에 따라 맞춰졌던 것 같다. 처음에는 연성부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작년에 연성부연에 참여했던 인자들은 이미 연성부연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대체 누가 연성부연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헛갈리는 상황에서 연성부연은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었다. 올 초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년에 연성부연이 결성된 것은 학칙제정운동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다시 연성부연을 꾸린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까'하는 생각 등을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들로 연성부연은 실제로는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연성부연과 같은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반성폭력 팀에 학내 성폭력에 대한 모든 사안이 집중된 것은 큰 부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연성부연이 있어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내용 생산 등이 담보되고 총여 집국회의에서는 활동 상황이 공유되고 집행되었던 것에 반해 올해의 경우는 첫 사업이었던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시행부터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현재 학내 반성폭력 운동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사건 해결과 지원, 학칙 시행 보완, 자치규약 운동 등) 이 수많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가지치기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는 연성부연이 없음으로 해서 총여학생회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학내 반성폭력 사안을 총여학생회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은 역량상으로도 우리가 따를뿐더러 반성폭력 운동을 총여가 독점한다는 차원에서도 옳지 못하다. 반성폭력 운동이 여전히 대학내 여성운동의 중요한 이슈이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라면 총여학생회의 고민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고민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형태는 작년의 연성부연과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 별로 팀을 꾸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이하 새터 내규)는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였는데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고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목표에 비해 평가는 그리 좋게 내릴 수 없을 듯하다.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이 처음 했던 사업이어서 초반에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앞서 '연성부연의 해소'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계획을 실천하고 내용 생산을 담보할 주체들이 없어서 매우 난감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 팀 형식으로 기획단을 꾸렸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게 준비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작년에 비해 교양자료나 시행의 위한 지침 등이 더 풍부하게 구성된 것은 잘 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각 단위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총

여학생회의 고민이나 역량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대체적인 무관심과 거부감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도 큰 이유라 하겠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커다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터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평가인데 대중적인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물론 평가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현장활동 반성폭력 내규

현장활동 반성폭력 내규(이하 현장내규)는 준비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늦게 제안되었고 교양과 시행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막판에 급하게 진행했던 문제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이다. 연대회의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연대회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현장내규 사업을 연대회의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시간도 지체되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현장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감(현장활동대의 구성과 단위 학생회와의 관계, 현장활동대와 지역과의 관계, 현장활동의 실제 경험 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중운위에 1회 제안하는 것과 현장활동대 자료집에 글을 신도록 하는 것, 농활대 전체 교양에서 짧은 교양을 진행하는 것(그나마 환활대는 교양을 진행하지 못함)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는 작년에 현장내규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살맛과의 소통이 안된 것이나 작년과는 달리 우리 학교 차원의 현장활동 주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 등의 문제도 있었다. 현재 사건은 1건도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활동 시에 실제로 어떻게 내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성폭력 사건 해결과 지원

2001년 1학기에 있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은 새터시 성폭력 사건 1건, 박일문 사건, 이영주 사건, 김기환 교수 사건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김성희 사건도 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지원은 반성폭력팀에서 전담하지 않고 각 사건마다 주체를 세워서 했는데 누가 주체인지 막연한 채로 사건은 지원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 해결 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건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할 때 난감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해놓고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김기환 교수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했던 것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미뤄놓았기 때문에 공론화 시기가 늦어지는 등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5. 반성폭력 규정 관련 활동

1학기초에 시행세칙 제정은 기본적인 소통만 되었을 뿐 대부분 12대에서 담당하였다. 여전히 규정과 시행세칙 제정 시에 논의되고 합의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 내용이 이월되지 않아 이후에 유권해석이 분분해지는 문제는 다른 단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학기 동안 규정 관련하여 한 대표적인 활동은 성폭력 대책위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규정과 시행세칙이 제정된 이후 첫 정기회의이고 상건례를 겸한 자리였기 때문에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었다. 그 테이블에서 논의될 안건을 미리 제출 받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었다. 학교측, 심지어는 성폭력 상담실 마저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고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좀더 치밀하게 지적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반성폭력 규정의 시행과 상담실 운영을 안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던 처음의 결심과는 달리 한 학기 동안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규정상 성폭력 처리의 의무와 책임을 학교측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난감하다.

6. '한대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활동

5기 연대회의는 구성원들의 경험부족이나 중간의 구성원 교체 등으로 인해 계속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초반에 어느 정도 활동 틀을 잡아나가지 못한 것도 활동이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7. 성폭력 피해자 법적 비용 지원 특별공동예산 배정 안건 상정

이 안건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 혹은 '학교측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면 학교측을 상대로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로 인해 일단 유보되었다. 너무 급하게 준비하기도 하였고 쉽게 보고 치밀한 논리를 만들지도 못했던 것 같다. 2학기 때 다시 상정해 볼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하겠다.

기타 - 총학생회 사무국장 문제

이는 총여학생회에 귀속된 문제라고 보기 힘들지만 총학생회에서는 총여학생회가 제기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몇 차례의 면담을 가졌다. 총집 인준에 대한 알 수 없는 기준이나 조직 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문을 선택한 것은 소통상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원래 문제와 상관없는 감정문제를 만들기도 했다.(이 부분은 총여학생회에서는 공문이라는 방식에 대해 별 문제가 없었던 데 반해 총학생회에서는 공문을 문제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총여학생회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약속해놓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총여학생회(이 때는 일련의 페미니스트 집단으로 읽힌다)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확운위 자리에서 해명하고 인준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성폭력 가해자의 이후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교수 성폭력 사건

01. 7. 13

발신: 엘티 때문에 한편 걱정이 되면서도 들뜬 운

수신: 방학후 약간 힘을 얻은 듯한 집국 여러분

13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여름방학 및 2학기 계획

1. 성폭력 사건 해결 백서 작업

작년 여름 방학에 연성뿌연에서 진행하였던 사업 중 '성폭력 사건 해결 백서' 발간 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성폭력 사건을 발생하는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 해결 의 비교적 자세한 과정을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올해로 이월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올 여름 방학에 당연히 하는 사업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목표와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목표 및 방향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인데 위에서 말했듯이 작년에 만들고자 했던 백서와는 많이 달라질 듯하다. 우선 학칙이 제정되어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가 (부분적으로) 달라진 것도 큰 이유이겠거니와, 작년과 올해에 갖가지 반성폭력 활동들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 보는데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히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단위 혹은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사건 해결의 방법론만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내용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가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이미 제정되어 있는 반성폭력 규정에 대해 알려내는 작업이 부가될 것이다. (덧붙여, 성폭력의 정의라고 하는 한 문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지만 여전히 그 개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 개념에 동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실제 사례와 그와 관련해 일어났던 논쟁의 지형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도 이용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설명하는 언어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할 것이다.)

□ 대상과 수위

일반적인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학내에 있는 단위나 공동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시기별 계획

7월 16일 - 7월 22일: 계획서 초안 작성, 제안서 작성과 팀 제안, 작년 자료 정리, 첫 모임 및 팀 구성 완료, 세미나 커리 찾기

7월 23일 - 8월 5일: 팀 세미나, 자료 수집 및 전체적 내용 잡기, 구체적인 팀 구성

8월 6일 - 8월 26일: 내용 집필과 검토, 후속작업 고민

8월 27일 - 8월 31일: 기획사 작업

9월 3일 이후: 발간 및 배포, 후속작업

□ 고민되는 점

현재 작업의 방향이 전혀 잡히지 않은데다 반성폭력 운동을 학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해 본 경험이 작년을 이후로 단절되어 있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방학 시기에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팀에 합류가능한 사람이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학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책자 발간 이외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지 고민된다.

2. 규정안 및 상담실 관련 사항

현재 학내 성폭력 상담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상담실 운영 정상화에 대한 건은 여러번 이야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이점 여러 번 반성했지만 역시 깊이 반성한다 T_T) 해법은 일단 간단해 보인다. 상담실 측에 사실 확인을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책위를 소집하여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상담실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측의 책임이지만 학생측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주체들이 거의 알고 있는 바도 전무하고 의지도 박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규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그 제도를 운영할 학교측의 의지나 역량-물론 역량보다 의지가 훨씬 더 큰 문제이다-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총여학생회에서 얼마나 개입하고 지지(support)해 주어야 하느냐가 지금의 딜레마이다.

규정이 제정되고 성폭력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금, 다시 말해 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규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작업과 규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다.

3.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지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해 오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박일문 사건 공판 지원 등) 그러면 여기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나름대로 해법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선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사건을 (상담실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아야 하겠다.

발신 사무국
수신 총여 집국

사무국 1학기 평가서

사무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곤란하게 느낀 것은 분명하게 정해진 사무국의 일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일이 총무에게 넘어가면서 집국회의를 준비하고 주재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꼭꼭 해야 할 일도 무엇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다. 그래서 잡다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과 같은 일들은 그 때 전화받은 사람이 덤탕이를 쓴다거나, 외부랑 만나는 일도 수업이니 뭐니 바쁘다고 대강대강 다른 집국들이랑 나눠서 하곤 했지요. 특히 여학생처를 만나는 일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 신문이나 사업 기획서, 자료집을 제가 가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임님은 항상 회장만 찾더군요. 학생처를 갈 때에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학생처나 학생처에서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제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회의 준비가 부실했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집국회의 즉석에서 안건들이 튀어나오고, 자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제시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집국이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기별로 변화하는지 명료하게 알기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저것 떠오르는 일들은 많은데... 다른 집국들이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같이 평가해주세요.

발신: 네나
수신: 집국덜

총무국 한학기 사업 계획

총무국의 2학기 사업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작성, 예산 자치제, 결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작성은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인 여성제에 대한 논의가 좀더 진행된 다음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성제의 규모나 세부 행사 등이 대략으로나마 결정되어야만 그에 따른 비용들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제 기획단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척되고 난 8월 중순이나 말 쯤에 예산안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예산 자치제는 1학기 평가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학기보다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만큼 학내 여성 자치단체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일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지원에 대한 홍보는 화장실 신문 개강호에서부터 홍보하고 9월 말경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자치제 테이블 마련은 여성제가 끝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여성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 자치제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성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를 예산 자치제 테이블이 꾸려지는 시기로 잡겠습니다.

2학기 결산은 굳이 지금 말씀 드릴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

총무국에서 넘어온 돈.